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가 연

#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Drawing Method to  
improve pre-school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가 연

#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조 가 연

조가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익 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I. 서론</b> .....	<b>1</b>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b>II. 정서지능의 이론적 배경</b> .....	<b>5</b>
2.1. 정서지능의 개념 .....	5
2.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	10
2.3.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	12
<b>III. 미취학 아동의 발달과 스토리텔링 드로잉</b>	<b>14</b>
3.1. 미취학 아동의 드로잉 표현 발달과 정서 발달 단계 .....	14
3.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	20
1) 드로잉의 개념 및 특성 .....	20

2) 드로잉의 교육적 의의와 중요성 .....	24
3) 스토리텔링의 개념 .....	27
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	27
<b>IV.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안 .....</b>	<b>29</b>
4.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안 .....	29
4.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작품 결과 분석 .....	51
<b>V. 결론 .....</b>	<b>61</b>
<b>【참고문헌】 .....</b>	<b>64</b>

## ABSTRACT

### A Study on Teaching Drawing Method to improve pre-school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Cho gayeon

Advisor : Prof. Cho yoonsung,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day, a variety of visual cultures change rapidly as new cultures are created. In a changing society, art makes everyday life beautiful and worthy. Therefore, art education has become an absolutely necessary subject for us. Art education is a field that stimulates imagination and helps us to look creatively. It also stimulates the desire for expression and transforms thought. Especially, in recent education, art education that helps harmonious human development is important because it aims at education that increases creativity.

How can this art education affect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raises creativity and gives expression to infants at the same time as being important. Nowadays people suffered from mentally or psychologically. Just as adults, the risk signals of mental health are turned on to children. To solve these problems,



art education can help emotional development.

If we look at the form of art education in our country, there are many limitations. First, functional arts teaching method is main. There is a traditional method of teaching to improve the artistic expression ability of uniformity which does not interact with the children and the picture is wrong. Second, it remains to enable children to lead their own work in artistic expression. It is necessary for children who grow beyond these limitations to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drawing and storytelling in the works, and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by expressing themselves in works.

Therefore I suggest a teaching plan that can help express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drawing. Drawing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be a means of expressing itself, even though it helps the wider field of view through observation. If you look at the drawing process, you can see the child's potential which grows expressiveness. Teaching drawing that is observed during the observation of infants judge that they can help them gain sufficient self-confidence by raising their expressive abilit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otional development from early childhood and to help form desirable human relationships. Because they have few opportunities that they are filled with preferences for learning abilities. Because the tendency of emotional development is the greatest in early childhood, we need some art education to cultivate infant emotions.

In fact, the infant who had a lot of emotional experience understood that he / she could understand the feelings of himself / herself and others, and he / she could resolve the disputes with the beddings well. Based on the drawing activities, the children express various emotions and experience mutual understanding, acceptance, and insight through art activities. It can express the individual's main emotions and relieve tension and anxiety. It helps children to have a drawing class to look at themselves. Children will be able to learn the ability to start drawing play, observe through repetition, and express the story of the picture in language. It will be self-expression training through drawing instruction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 You need a creative teaching drawing that can express with interest.

For infant children, the most important point in drawing education is to draw attention. You should give your children an exciting stimulus and give them space that can be expressed infinitel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observe the drawing objects and to train the image and image association training in drawing guidance for infant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e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ow to express this in a certain wa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 examined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preschool children.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rt education, and examine the need for emotional

intelligence in art education.

Second, the definition of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 stage of the subj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 expression, and the drawing education of these preschool children were examined. In addition, I planed an effective plan to explore how to stimulate and express the interest of objects.

Third, the lesson was based on drawing instruction about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The course was developed for the participants of the Gwangju Western Cultural Center. After observing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I looked at the results of the work. This study aimed to improve children 's emotional intelligence based on drawing.

Keywords : pre-school child, Drawing, Emotional intelligence

## 표 목차

〈표 1〉 정서지능 구분 모형 (3영역,10요소) .....	7
〈표 2〉 정서지능의 구분 추가 모형 (4영역, 12요소) .....	8
〈표 3〉 골만(Goleman)의 정서지능 구성요소 모형 .....	11
〈표 4〉 아동의 연령 단계별 드로잉과 정서 발달 특징 .....	16
〈표 5〉 수업지도안 1 .....	33
〈표 6〉 수업지도안 2 .....	39
〈표 7〉 수업지도안 3 .....	45

## 그림 목차

[그림 1] 라스코 동굴벽화 .....	22
[그림 2] 수변의 수렵 .....	23
[그림 3] 다빈치 ‘장갑차’드로잉 .....	23
[그림 4] 학생작품1 .....	52
[그림 5] 학생작품2 .....	52
[그림 6] 학생작품3 .....	53
[그림 7] 학생작품4 .....	53
[그림 8] 학생작품5 .....	55
[그림 9] 학생작품6 .....	55
[그림 10] 학생작품7 .....	56

[그림 11] 학생작품8 ..... 56  
[그림 12] 학생작품9 ..... 58  
[그림 13] 학생작품10 ..... 59  
[그림 14] 학생작품11 ..... 60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새롭게 문화가 생성되는 오늘날 다양한 시각문화는 빠르게 급변한다. 변화 되는 사회 속에서 미술은 일상이 아름답고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에 미술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술교육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고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분야이다. 또한 표현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사고를 전환시킨다. 특히 최근 모든 교육에서는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려 하고 있기도 하고 조화로운 인간 육성에 도움을 주는 미술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이 미취학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고 표현의 자유를 주며 함께 중요시되는 능력은 정서지능이다. 현대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정신건강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효과적인 드로잉 지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드로잉은 관찰을 통해 시각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표현수단이 되는 장점을 가진다. 사물의 실제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표현 할 수 있고 개성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드로잉 과정을 보면 미취학 아동의 정서표현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아동을 상대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는 표현 능력을 길러 자신감을 충분히 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취학 아동들의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미술을 통해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미취학 아동에게 정서발달의 경향성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제로 정서 경험이 많은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친구들과의 분쟁 또한 비교적 더 잘 해결 된다고 한다<sup>1)</sup>. 드로잉활동을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 수용, 통찰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주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서지능에 도움을 주는 드로잉 수업을 접하게 함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드로잉 놀이를 시작하며 반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는 자기표현 훈련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흥미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정서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드로잉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드로잉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일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자극을 주어야 하며 무한으로 표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드로잉 지도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표현에 대한 두려움 등의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서지능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1) Herrera & Dunn, 1997, (최연미, “명화를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p.1에서 재인용).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안영춘의 논문은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②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박여진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창의적 미술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③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하지현은 드로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서지능과 정서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드로잉 지도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두려움 등의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며 흥미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서지능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드로잉 교육을 다루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각 발달단계에 따른 표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한 5-7세 아동의 표현적 특징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드로잉 지도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교수학습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들에게 정서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와 정서지능과 미술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교육에서의 정서지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미취학 아동의 정의 및 대상들의 발달단계, 드로잉표현 특징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의 드로잉 교육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대상들의 흥미를 어떻게 자극시켜 표현하게 할지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안을 계획한다.

셋째,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정서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안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광주 서구 모 문화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안을 창안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한다. 아동들의 흥미도를 관찰한 후 작품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서지능과 드로잉에 관한 문헌정리를 참고하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방안을 제안한다.

## II. 정서지능의 이론적 배경

### 2.1.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분명히 합의되지 않았다. 정서에 대한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일치된 부분을 살펴보면 정서란 ‘어떤 대상과 상황을 지각하고 이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 복잡한 상태’<sup>2)</sup>라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서지능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측정방식을 개발한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의 연구와 더불어 이후 정서지능을 대중화 시킨 골먼 (D. Goleman)의 연구에 기초하였으며,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는 1997년에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서와 지능에 관련된 능력이며, 다양한 인지, 사회, 정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절하고 사용하는 기본 능력의 총칭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정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평가 및 지각하거나 표현하는 사고를 촉진시키는 정서능력, 그리고 정서에 관하여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이며 지적인 성장을 늘려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3)</sup>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기존의 지능이론을 비판하며 학업성취와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예언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등장했다.

정서지능의 등장 배경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능검사의 한계이다. 지능지수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예언이 10% 이하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를 감정, 감성, 정서와 같이 하나의 개념을

2)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믿음사, 서울. p. 2.

3) Mayer & Salovey, 1997 ;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5에서 재인용).

보충하기 위하여 정서지능 개념이 등장하였다. 둘째, 신경생리학 발달이다. 두뇌에서 정서기능을 관할하는 기관은 출생 시부터 완전한 형상을 갖으며 인지기능에 관할하는 기관에 비교하여 더욱 빨리 성장하였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정서기능이 두뇌 전체적인 제압과 이성과 정서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정서기능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동기가 되었다. 셋째, 정서지능의 후천적 개발의 가능성이다. 인지적 지능에 상대적으로 견주면 후천적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학습자상이다. 경쟁력 보다는 타인과 함께 협동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서적 인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서지능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의 연구에 의해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골먼 (D. Goleman)에 의해 인간의 발달에 의해 정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주목받았다.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는 1990년에 정서지능을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인지하고 표현과 이에 따른 조절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주고 대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린다.<sup>4)</sup>

정서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공표할 때,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은 <표1>과 같이 첫 번째 정서지능을 정서의 인식과 표현, 두 번째 정서의 조절, 세 번째 정서의 활용으로 크게 3영역으로 나누며 각각의 영역 아래 하위 요소로 전체 10개의 요소를 나누었다.

---

4) Salovey & Mayer, 1990 (권현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음악 감상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음악적 표현능력, 음악적 태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p.46에서 재인용)

<표 1> 정서지능의 구분 모형(3영역, 10요소)<sup>5)</sup>

영역	수준
영역 I :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영역	[ 1요소 ] '나'의 정서 - 언어적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 2요소 ] '나'의 정서 - 비언어적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 3요소 ] '타인'의 정서 - 비언어적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 4요소 ] 상호간의 감정이입
영역 II : 정서의 조절 영역	[ 요소 5 ] '나'의 정서를 조절 [ 요소 6 ] '타인'의 정서를 조절
영역 III : 정서 활용	[ 요소 7 ] 융통성을 갖고 계획 수립하기 [ 요소 8 ] 창조적인 사고 [ 요소 9 ] 주의에 대한 집중 전환 [ 요소10 ] 동기화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들이 인식이나 조절능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에 관한 판단능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요소라 할 수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였다. 이에 '정서 사고의 촉진 영역'이나 '정서적 지식 활용'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표 2>와 같은 모형을 정서지능의 정의와 함께 여러 능력들을 배열한 기준을 보면 위계와 수준을 바탕으로 배열하였다. 각 영역별로 4가지 요소를 두고 이에 하위수준을 두어 16요소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Mayer, J. D. and Salovey, P. 1990 ;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5에서 재인용).

<표 2> 정서지능의 구분 추가 모형(4영역, 12요소) 6)

영역	수준
영역 I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	[ 1수준 ] '나'의 정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하기 [ 2수준 ] '타인'의 정서에 대하여 이해하기 [ 3수준 ] 정서가 정확히 표현되고 관련된 정서욕구를 표현하기 [ 4수준 ] 표현되어진 정서를 구별하기
영역 II 정서로 인한 사고 촉진	[ 1수준 ] 정서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여 사고의 우선순위 결정하기 [ 2수준 ] 생생한 정서를 나타내어 관련된 판단 기억하기 [ 3수준 ] 정서를 더 효율적이고 숙련된 정서와 사고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 4수준 ] 정서 상태를 보고 문제 해결 접근하기
영역 III 정서 지식 활용	[ 1수준 ] 정서 분류에 대해 이해하고 명하기 [ 2수준 ] 정서가 전달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 3수준 ] 복잡,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 4수준 ] 정서의 전환의 변화 양상을 추구하여 논의하기
영역 IV 정서 반영적 조절	[ 1수준 ] 정서에 대하여 개방적인 수용 [ 2수준 ] 정서의 유익성 그리고 실용성을 반영하여 정서를 지속시키거나 읊기기. [ 3수준 ]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점검하기 [ 4수준 ] 정서가 전달하는 정보에서 축소하고 과장하는 등 왜곡하지 않고 '나'와 '타인'에 대한 정서를 관리하고 조절하기

6) 이영자 외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2002, p. 17.

1995년 골먼 (D. Goleman)의 저서인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로 인해 “정서지능”이 대중화 되었다. 그 후 정서지능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는 더 정교해지며 세련되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정서지능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며, 정서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골먼 (D. Goleman)은 1995년에 정서지능에 대하여 “정서지능은 정서를 지각하고 조절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며 대인관계를 다루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다. 정서와 관련된 능력과 성격적 특성이 포함된 개념, 동기 부여나 대인관계 등을 함께 보았고, 정서에 대한 유추, 정서에 의한 사고 조작 등을 ‘정서능력’의 핵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는 ‘정서능력’이 정서를 확실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이며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게 정서의 생성을 도와주는 능력이고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의 이해를 돕는 능력이며 정서적, 지적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서에 의한 인식과 조절, 감정에 의한 사고능력, 정서 및 사고의 관련성, 정서에 의한 사고의 촉진 가능성이 반영되어 1990년대 초기 개념이 대체되었다.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로 정서를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주장들 중 일치하는 점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sup>7)</sup>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정서지능은 작은 사회인 아동들의 학교생활이나 성인들의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서지능은 개인의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 적응과 안정된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을 갖게 한다. 아동들의 학업능력, 또래관계 성인들의 대인관계 등에 도움을 주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 아래 정서지능의 개념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정서까지도 인지하고 상호관계 속에서 공감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7)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믿음사, 1995, p.2.

정서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조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 2.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는 1990년,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골먼 (D. Goleman)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다시 메이어와 살로베이 (Mayer & Salovey)가 1997년, ‘나’와 ‘타인’의 정서 평가와 표현, ‘나’와 ‘타인’의 정서 조절, 사고나 추론, 문제해결에서 정서의 활용 이러한 4가지 영역과 4가지 발달 수준으로 재정의 되었다.

정서지능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를 높인 것은 바로 골먼(D. Goleman)이었다. 골먼(D. Goleman)은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로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기인식 (self-awareness)-'나 자신을 알자'. 자신의 내적 정서 상태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나’자신, 스스로의 감정상태를 깨닫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상당히 중요하며 통제는 단순히 ‘억제’ 보다는 적절한 ‘통제’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정서를 다루는데 크게 3가지 유형 ① 몰두형, ② 자기 인식형 ③ 수용형 을 살펴볼 수 있다. 이다.

둘째,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 - '난관을 극복하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정서적 능력을 다음 세 가지 하위요소로 설명된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하는 집중력 능력, 정서는 충동적인 본질을 갖지만 미래를 위해 이를 참는 만족지연 능력, 긍정적 사고는 자신감을 유지시키고 복잡한 과제를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낙관성을 포함시킨다.

셋째, 감정이입(empathy, 공감)-‘타인을 이해하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감을 통하여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공동체적 삶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능력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으면 정서적 적응이 잘되고 있고 과제

수행이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매우 성공적이라 말한다. 반사회적 범죄자는 이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자기조절(self-managment)-‘마인드컨트롤하기’ 충동성이나 공격성 등의 본인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정서의 억압보다 정서의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정을 해소하게 된다.

다섯째, 대인관계기술 (Social skills) -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기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으로 ‘타인 감정 이해-나의 감정 인식 - 나의 행동 정리 -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불쾌하다 느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각 등을 나타내는 ‘정서표현’이 가장 핵심적 기술이고 훈련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8)

<표 3> 골만(Goleman)의 정서지능 구성요소 모형

정서지능 구성요소 1	자기인식 (Self-awareness)
정서지능 구성요소 2	자기 동기화 (self-motivation)
정서지능 구성요소 3	감정이입(empathy, 공감)
정서지능 구성요소 4	자기조절(self-managment)
정서지능 구성요소 5	대인관계기술 (Social skills)

골만이 설명하는 나를 알아가는 자기인식, 문제해결능력의 자기 동기화, 타인을 이해하는 감정이입, 감정 통제의 자기조절, 타인과의 관계조절의 대인관계기술까지의 다섯 가지 정서지능 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드로잉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시켜 정서지능 향상 효과를 기대해본다.

8) Goleman 1995 ; (김세진,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2013, p.11에서 재인용).



### 2.3.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아동의 정서,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능력이다. 정서지능은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와 더불어 부모, 형제, 또래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세분화되고 다양화시킨 정서를 인식, 표현, 조절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며 확장시킨 정서지능을 말한다.<sup>9)</sup> 아동은 유아기 때부터 어른들이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 지를 관찰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심리상태의 인지가 서투르며 언어능력의 한계를 보이기에 아동의 정서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들 간의 발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도 개인차가 크다. 미취학 아동들이 활동을 바탕으로 경험하는 사회, 문화, 교육 경험을 통하여 학업능력 만큼 중요한 정서지능이 향상된다. 정서지능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사회, 문화, 교육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며 정서지능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미취학 아동들의 정서를 살펴보면 초기에 애정의 반응만 나타났다면 점차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희열을 느끼고 불안감, 수치심, 실망과 선망 등의 성인과 같은 정서가 점차적으로 발달된다. 하지만 이를 언어로 정서를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표현활동을 통하여 정서상태를 이해한다. 미술활동이나 음악, 체육 등의 활동으로 정서를 알아내기에 효과적이다. 아동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반응을 무의식중에 표출한다. 이러한 정서적 발달과 학습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정서지능이 두드러지게 발달한다.

9) 김현경, 이지은 1998 ; (이연미, "집단미술치료를 경험한 유아의 정서지능 변화와 KHTP 변화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2013, p.5에서 재인용).

미취학 아동은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 정서지능 향상을 위해서는 ‘나’의 정서를 이해하고 ‘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러한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적응하는 것이 미취학 아동기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아동의 정서지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며 수행되기 때문에 활동 속에서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떠올리고 나의 정서, 타인의 정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를 떠올리게 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안을 제안한다.

### Ⅲ. 미취학 아동의 발달과 스토리텔링 드로잉

#### 3.1. 미취학 아동의 드로잉 표현 발달과 정서발달 단계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로잉활동은 활동 그 자체에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된다. 유아기 활동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접하면 하나의 창조적인 활동이 된다. 유아는 드로잉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각을 구체화하여 느낀 점을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 정서적인 부분에서 손으로 직접 만지고 꾸미는 과정을 통해 각 부분들의 성장을 볼 수 있다. 드로잉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들에게 드로잉은 자신의 표현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드로잉을 통해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한 난화기에도 끄적거림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을 공유하고 드로잉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자기표현이며 언어가 조금 미숙한 아동들에게 의사소통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드로잉을 통해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하면서 심미성을 익히게 된다. 아동은 드로잉활동을 통해 미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원칙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상에 대한 미적 감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인식의 사고로 발전하여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며 정서를 순화시킨다.

셋째, 드로잉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기호를 제공한다. 아동들은 드로잉활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동들은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사고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넷째, 드로잉은 지적과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아동은 드로잉 활동 전, 그럴 대상을 생각하고 대상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키워 주어 지적능력을 향상시킨다. 미술을 통한 감상영역에서는 다양한 견학하고 감상

하는 활동에서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신체의 조정능력을 기르고 통합능력을 얻게 된다.

다섯째, 드로잉은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드로잉 표현활동에서 오브제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오브제의 사용법을 알아가고 새로운 응용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확장과 문제 해결능력은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새로운 사고를 탐색하며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드로잉은 자유롭게 끄적이는 난화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들은 생활 속에서의 드로잉의 역할을 인식하며 드로잉활동을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드로잉은 아동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내적인 표현의 욕구를 갖지만 언어적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드로잉을 통하여 이러한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도 한다. 드로잉은 직관적이며 감상적인 특징이 있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심미적 감흥을 끌어내 우리의 정신, 정서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따라서 드로잉활동을 통해 아동의 직관력과 통찰력, 그리고 감성을 길러주며, 분석적이고 논리적 지식과 어울려 조화로운 인간상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서교육을 위한 드로잉 지도가 필요하다.

<표4> 아동의 연령 단계별 드로잉과 정서 발달 특징 10)

단계(연령)	발달 특징	
	드로잉 표현 발달단계	정서 발달단계
난화기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질서한 난화기 : 감각이 주변 환경과 감촉하면서 그에 따른 반응을 보고 처음 드로잉을 끄적거리기 시작한다. 동작의 통제가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드로잉이 특징.</li> <li>• 조절하는 난화기 : 표현 가능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각과 근육 활동 간의 협응이 이루어지며 드로잉에서 선이 일정하게 반복되어 나타남</li> <li>• 명명하는 난화기 : 무의식에서 점차 의식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드로잉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과 아동 상호간에 대한 애정 반응이 보여진다.</li> <li>• 기쁘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실망, 선망 등 성인과 같이 느껴지는 정서가 형성된다.</li> </ul>

10) 김상미, “정서지능 개발 미술프로그램을 통한 회화 표현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p.10-11.

<p>전도식기 4-7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로잉으로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아는 것을 그린다.</li> <li>• 반복을 통해 한정된 개념을 발달</li> <li>• 드로잉의 주제를 자기 중심으로 표현한다. 인물과 자연물 중 나무, 해, 산 등을 주로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li> <li>• 테마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럴 수 있고 없는 내용이 뚜렷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이루어진다.</li> <li>• 상상력, 사고력, 평가력이 풍부해진다.</li> <li>• 생리적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다.</li> </ul>
<p>도식기 7-9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로잉의 대상을 ‘나’와 관계를 공식화하며 도식화하여 표현한다.</li> <li>• 중요하다 부분을 과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며 주관적 인물과 공간개념을 표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와 사귀는 방법을 습득한다.</li> <li>•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발달시킨다.</li> <li>• 양심, 도덕, 가치, 척도가 발달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지선이 나타나 바닥이나 땅을 나타낸다.</li> <li>• 표현성 요구가 강해져 계속해서 흥미를 유지하는 아동과 아닌 아동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li> </ul>	
<p>사실여명기 (9-11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 집단 의사를 존중하고 도식으로부터 벗어나 세부적인 드로잉 표현이 나타난다.</li> <li>• 화면에서 중첩과 기지선 사이에 공간을 인식하고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li> <li>• 지각의 발달로 인해 사물의 구조를 알게 되고 표현하려한다. 표현의 한계에 영똥한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 도덕적 가치가 더욱 발달되며 인격이 독립성으로 성취되고 자주적 인간이 형성된다.</li> <li>• 사회적 집단과 사회제도에 대한 태도가 발달한다.</li> </ul>
<p>의사실기 11-13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끄적이는 드로잉이 아닌 대상을 관찰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또래와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li> <li>• 부모나 어른과의 정서적 독립을 이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과 원근감, 비례들을 표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한다.</li> </ul>
결정기 13-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로잉에 대한 심미적 감상능력이 생김</li> <li>• 창의력이 왕성한 시기로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li> <li>•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 그대로 그리지 않을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정체감이 형성</li> <li>•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등 극단적인 정서가 나타난다.</li> </ul>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 사실여명기, 의사실기, 결정기로 연령별 단계를 구별하였으며, 끄적이는 난화부터 시작하여 심미적 감상능력이 생겨나는 결정기까지 발달단계에 따른 드로잉표현과 정서에 대하여 표로 정리했다. 아동의 전체적인 정서 발달과 드로잉 표현 발달에 따라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과 정서교육을 위한 드로잉 지도안이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 3.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 1) 드로잉의 개념 및 특성

드로잉의 어원은 드로잉(Drawing)이란 단어는 ‘그리다’(Draw)라는 뜻과 ‘선을 긋다’는 뜻인 라틴어(Latin)와 튜톤(Teaton)어에서 유래되었다. 그 본래의 뜻은 도로상에서 마차를 끄는 표현의 ‘당기다(Full)’, ‘끌다(Drag)’의 뜻으로, 하나의 화면에 도구를 사용해서 당기거나 끌어서 표시를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드로잉은 연필이나 펜, 크레용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의 윤곽을 그리는 그림으로 그 자체로 독립된 작품으로 본다. 보통 흑백의 드로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더 나아가 색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표현방법을 활용한 오늘날 드로잉에서는 드로잉과 회화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드로잉 그 자체만으로 회화 작품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드로잉을 독자적 회화로 바라본 시점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드로잉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떠오른 사고를 통해 손쉽게 표현 할 수 있었으며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드로잉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표현의 시각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거칠게 표현하는 등 다양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읽을 수 있다.

오늘날, 드로잉은 미술의 입문단계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드로잉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드로잉은 독보적인 예술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 드로잉과는 다르게 그 기능이나 범위의 틀 안에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회화의 기초적인 입문단계의 작업이라는 드로잉의 인식도 있으며 소묘나 데생과 같은 영역의 하나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크로키나 스케치와 같은 요소로 구성시키고 있기도 하며, 드로잉을 소묘에 포함시키는 시각도 있다.

11) 임정기의 9인, 「기본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청주: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90, p.58

드로잉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그 변화에 따른 드로잉 개념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념을 통해 더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현의 의미의 드로잉이다. 다시 표현한다는 뜻의 재현은 기왕에 있었던 것이나 현재 있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추상 작업이다.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본질을 크로키나 스케치, 또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감각적 표현의 드로잉이다. 인간은 오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을 통해 감각을 지각한다. 이러한 감각을 통해 형태의 개념이나 명암 등 다양한 개념까지 형성해 나간다. 감각적 표현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표현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감각을 증진시키며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셋째, 심리적 표현의 드로잉이다. 순간의 생각과 심리를 작품에 전달하는 것이다. 거칠게 또는 부드럽게 각 도구들을 사용하여 또는 은유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등 작품에 순간의 심리를 담는다.

드로잉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표현이다. 드로잉은 가려져있는 본질을 재현하기도 하고 감각을 통해 표현하고 심적인 부분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회화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독립적인 회화의 요소로 드로잉이 자리매김 하였다. 작가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사고, 아이디어를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였고, 이는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회화와 드로잉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안에서의 재현의 의미, 감각의 표현, 심리적 표현을 읽으려 노력하며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드로잉은 오래된 매체로서 인류가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고대부터 윤곽선으로 암벽에 동물이나 자연을 묘사해 놓은 관념적인 차원에서 그려진 드로잉을 볼 수 있다.

구석기 시대 드로잉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뼈나 돌을 이용하여 벽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선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보존하였다. 아래의 라스코 동굴벽화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림 1]

라스코 동굴 벽화

이집트 미술에서의 드로잉은 아라비아고무와 목탄가루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시켜 검은 잉크를 만들어 묘사하여 표현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이집트 미술의 ‘수변의 수렵’이라는 작품이다. 이집트 미술에선 드로잉을 순간의 모습을 포착하여 명확하게 표현한다. 복잡한 다양한 요소거리를 통해 집단적 형태를 보여주고 이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세시대의 드로잉을 살펴보면 화공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관념적인 모델링을 시작으로 중세 후기에 이르러 규제 의식이 개성적이고 자율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

수변의 수렵



[그림 3]

다빈치, '장갑차' 드로잉

이집트 미술 / 런던 대영 박물관 소장

르네상스로 들어서면 드로잉 자체가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고 시각 예술에서의 기초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받아 들여졌다. 15세기 종이 사용이 많아지면서 드로잉 연구 또한 활발해지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부학이나 다양한 건축과도 같은 기초적인 연구를 보여주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교재로 남아있다.

인상주의자들은 회화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과정으로 보여지던 드로잉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기 시작하였다. 대상을 그리는 드로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대상을 관찰하고 보는 방법이라고 드로잉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인상주의자들은 회화와 드로잉의 구분을 없게 하였다.

현대에서는 새로운 드로잉이 보여 지기도 한다. 드로잉에 감정을 집어넣는 일이다. 개념에서 벗어나 환경에서 얻어지는 감정과 느낌 순간의 표현을 통해 드로잉이 보여 진다. 고흐의 작품에서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필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함과 같은 것이다.

드로잉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또는 무의식, 잠재의식을 표현하고 끄집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의 드로잉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폭넓은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2) 드로잉의 교육적 의의와 중요성

어릴 적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창조와 함께 한다. 난화기 시절 손에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제공되어 졌다면 그어나간 낙서와 같은 급적거린 것이 드로잉의 시작이 된다. 이런 낙서는 곧 아이들에게 놀이가 되고 이 놀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시킬 수 있고 시각적인 활동이 되어간다. 같은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하더라도 아동들의 표현을 보면 하나로 분류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주제에 대한 사고와 환경과의 연계 또는 순간의 감정과 어울려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몇 시간 되지 않는 교육과정 속 미술교육은 주제전달, 작품제작, 결과의 순으로 허둥지둥 작품이 표현된다. 또는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미술교육의 현장을 볼 수 있다. 사회는 급진적으로 바뀌고 발전하고 있다. 미술교육 또한 사회와 함께 바뀌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드로잉을 통한 미술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현대인들에게 치료의 영역으로의 쓰임까지 확장된 면을 볼 수 있다. 드로잉은 관찰함을 자신만의 표현방법으로 표현해 내는 시각적 언어의 훈련이다. 사물을 보고 나타내면서 활동을 시작한다. 단순한 따라 그리기 식의 미술활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훈련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한 드로잉 지도계획을 통해 아동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기대해본다.

미취학 아동들은 아는 것을 그리기 시작하며 대상과 표현된 것과의 관계를 짓기 시작한다. 반복을 통해 개념을 발달시킨다.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며 인물, 나무, 산 등을 주로 그린다. 다양한 재료들로 드로잉 할 때,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하며 시각과 촉각 또한 발달되며 미술활동이 신체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된다. 이 때, 다름을 알게 되며 다른 생각을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는 태도를 배운다. 또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작품을 설명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며 다른 그림을 표현하게 된다. 난화과정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것을 그리는 ‘상징’으로 발달한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탐색적 상징기가 미취학 아동의 드로잉 표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드로잉은 단순히 대상을 따라 그리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관찰하고 사고하여 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같은 대상을 두고 지도하여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고 표현한다. 한 아동은 대상의 동세를 표현할 것이고, 다른 아동은 대상의 질감 또는 표현 아동의 감정을 집어넣어 표현할 수 있다. 재료나 기법, 구도에서도 다양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로서 아동들에게 관찰표현은 개성 있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음을 야기한다.

좋은 드로잉이란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에게 직접 관찰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그림 이 바로 개인의 뛰어난 작품이란 걸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아동들의 개성 있는 표현들은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될 것이며 창의성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능력은 기초적 조형능력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향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것처럼 드로잉도

구성을 통해 계획하는 역할인 셈이다. 드로잉은 기본적인 표현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구상단계로서 에스키스로 많이 보인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미술로 표현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미취학 아동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형 활동을 익혀 주고 드로잉 훈련을 시켜준다면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드로잉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가장 좋은 지도방법이 될 수 있다.

아동들에게 우리는 창작 활동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드로잉이라는 분야의 개념을 확립시켜주고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난화기의 언어 발달이 아직 되지 않은 아동들에게도 난화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드로잉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깨우고 대상에 대해 관찰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동 스스로 발달 단계에 맞는 사고와 표현으로 자기표현을 시작한다면 미술에 대한 시선이 점차 발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드로잉 미술 수업의 핵심이고,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과 타인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사고를 미술에서 드로잉과 연결시켜 감수성과 연결시키고, 이해심을 기르게 하여 공감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드로잉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그 내면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 상호작용을 그림에 표출한다. 관계를 맺기 원하며 사물이나 재료를 통해 유대관계를 찾고자 한다. 세부적인 묘사나 조밀한 부분을 표현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느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현, 대상의 특징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리는지’가 아닌 경험을 토대로 감정이 전달되는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진행 해 주어야 할 것 이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통한 스토리텔링 드로잉 지도안을 계획하려 한다.



### 3)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Oxford 사전을 바탕으로 ‘The action of telling story’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누구나 무엇을 표현할 때 ‘이야기’로 형상화 하는 형태를 취한다. 음성이나 행동을 전달하며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생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이어준다.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참여시킨다. 둘째,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형태를 취한다. 넷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이야기의 영향을 통해 더 크게 강조되기도 하며 창조되기도 한다.

### 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현장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집중 시키고, 쉽게 이해시키며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낸다. 미술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자기 경험을 통한 스토리텔링은 순수한 지식과 정보로서가 아닌 사건과 상황의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생각과 이념을 드러내는 가치 지향적 작업이다. 둘째, 예술의 이야기로 예술의 본질인 작품을 미적으로 형성시키고 인간 모두의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예술 활동이다. 셋째, 소통의 활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흥미 있게 표현을 통한 전달로 인해 인식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넷째, 화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스토리 속의 시공간 배경에 배치된 대상에 몰입되어 대상과의 동일화된 감정에 빠지게 된다. 이는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며 감정이 이입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이 미술교육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

드로잉지도를 통해 아동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표현하며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표현한다. 스스로 경험의 이야기를 창조하며 ‘통찰’할 수 있다.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나에 대해 집중하고 내가 사고하는 범위를 넓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나와 타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험과 연결 지어 창조된 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활동의 교육적 가치는 드로잉 활동을 통해 아동이 자아탐색에 집중하고 이야기에 대한 몰입과 타인의 감정 인식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자아낼 수 있다.

## IV.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안

### 4.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지도안

미취학 아동의 시기는 신체적, 언어, 정서 등 각 분야에서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 활동의 전개에 따라서 생활감정을 표출하고 발달을 돕는 교육이 된다. 이러한 교육이 유아의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등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표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한다. 주제를 인지하고 연상하고, 그 발상에 따른 작품을 제작하는 순차적 과정에 의해 수업을 진행한다.

미국의 미술 교육학자인 바칸은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은 방임에 가까운 실기활동이 이루어지며 표현 중심의 활동으로 흐르기 쉽고 교사의 성향이 소극적 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미술 내용에 대한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발달의 범위가 크고 도움이 자극적일 수 있는 아동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사의 발문과 주제 제시, 보조 시각 자료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이끌어 내본다.

아동들에게 미술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표현의 도구로 활용된다. 실기적인 표현지도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자기표현의 유도과 더불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로잉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태도와 관점이 중요하다. 정서를 자극하여 아동들이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자아개념의 검사를 실시한다. 아동의 자아개념 정도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다양성과 개인차를 고려하

여 가정과 사회 문화적 배경 등에서 오는 개별성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필요성을 숙지하고, 학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며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미술은 물질을 통해 구체적 형태로 표현된다. 교사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인지하고 재료의 특징과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아동의 미술활동 시 필요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한다. 아동에게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를 설명하고 표현 방법 등 아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동시에 아동이 선택함과 동시에 가능한 책임을 지도록 강조한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서탐색 과정 속에서 미술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완 시켜주고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으며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아동 자신이 생활 속에서 정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를 찾고 이미지와 대상에 대하여 도식과 상징을 발견하도록 지도하며, 어떤 생각을 제시할 때, 그 생각에 대한 존중과 격려 속에서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고 기본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아동을 대할 때 아동의 감정이 풍부해지므로 이러한 태도를 기본으로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한다. 미술의 특성상 일반적인 규범적인 가치의 전달에서 벗어나 아동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교사는 미술활동을 정형화된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아동의 내면을 살펴보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아동의 미술표현 과정 속에서 다양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정서 발상 및 표현을 통하여 정서탐색과정이 이루어지게 지도한다.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며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 작업을 통해 자신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며 협동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현을 하고 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어떤 감정으로 그렸으며, 그 감정의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의 마

음을 읽는 습관을 심어준다. 아동들이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면서 해소를 도와주고 안정된 정서를 갖게끔 지도한다. 발표 및 감상 시 미취학 아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현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제에 대한 의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동들 간의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게 한다. 실수를 부끄러워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해주며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교육에서 작품을 우열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현장에서는 작업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평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전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 시 아동의 개별 행동이나 또래와의 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표현의 옳고 그름보다는 아동이 느끼고 있는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수용적 환경에서 평가 하여야 한다. 정서지능의 평가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이해하고 가정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개별성에 따라 평가한다.

교사는 아동의 활동 결과에 의한 평가 자료들을 개인별로 수집하고 교육 목표와 연결을 통해 분석하고 다음 교수 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로 사용하며 아동의 부모에게 상담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의사소통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적절하게 사용된다.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표현력 신장의 진전을 위하여 평가 결과는 해설적인 형식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 상황을 기록한다.<sup>12)</sup>

교사는 정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이해하고 아동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의 긍정적 방향에 따라 아동들도 정서교육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미취학아동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미술활동 중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자신

12) 이영자 외,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서울, 2002, p 69

을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이제껏 미술교육에서 보여 왔던 ‘따라 그리기’와 ‘칠하기’가 아닌 아동의 개개인의 특성을 돋보일 수 있게끔 수업지도안을 연구하였다.

굴만(Goleman)의 정서지능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①자기인식(Self-awareness), ②자기 동기화(Self-motivation)의 요소, 두 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③감정이입 (Empathy) ④자기조절 (Self management), ⑤대인관계기술(Social skills)의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정서지능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드로잉 지도안을 창안하였다. 작품을 표현하기에 앞서 아동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경험에 안주하며 피상적이거나 고정적인 사고와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함을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1)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

<표5> 수업지도안 1

대상	5-7세		수업자	본 연구자	
교과	미술 / 총 1차시 (50분)		개별화요소	골맨 (Goleman)의 정서지능 5 요소를 접목	
학습 주제	거울을 보고 여러 가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학습 목표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①자기인식(Self-awareness) ②자기동기화(Self-motivation)을 경험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다양한 표정을 보고 감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나'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한다.	아이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		
환경 및 투입 자료	교사 - 표정과 감정에 대한 참고자료 학생 - 거울, 드로잉 재료 (8절지,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학습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유의 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 인사 및 출석확인 - 출결을 확인	● 교사와 함께 상호인사		여러 가지 표정 사진

	<p>학습 분위기 조성</p> <p>동기 유발하기</p> <p>전시 학습 상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li> <li>● ‘거울’의 소재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li> <li>● 발문을 통해 전시에 진행된 정서지능 향상 드로잉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선생님의 말을 경청한다.</li> <li>● 거울에 관심을 보이며 학습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는다.</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해본다.</li> <li>●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한다.</li> </ul>	<p>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p>
<p>전개 - 중심 활동 (35')</p>	<p>학습 목표 제시</p> <p>주제 제시</p> <p>학습 내용</p> <p>작품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거울을 보고 여러 가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li> <li>● 표정에 따른 감정에 대하여 설명한다.</li> <li>● 표정의 예시작품을 보여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학습단원 학습목표를 읽고 오늘 수업 주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학습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li> <li>● 준비된 자료를 함께 보며 수업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li> </ul>	<p>예시 자료</p>

	<p>순회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울을 보고 표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의사항</li> </ul>           5-6가지의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         </li>   <li>● 실기실을 순회하면서 개인별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을 통한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li> </ul>           질문을 통해 드로잉에 도움을 준다.         </li>   <li>● 드로잉이 먼저 끝난 아동은 발표를 준비를 진행 하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울을 보고 나의 표정을 관찰하고 표정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각자 개성에 맞는 표현방법을 생각한다.</li>   <li>● 작품제작 계획서 작성 요령을 잘 숙지하고 유의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li>   <li>● 동그라미를 5-6개 그리고 그 안에 표정을 그려 넣는 실기를 진행한다.</li>   <li>● 어려운점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한다.</li> </ul> </li> </ul>	<p>드로잉 재료</p> <p>순회 지도</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로잉이 끝난 후 발표를 준비한다.</li> </ul>	
정리 활동 (8')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이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감정, 정서에 집중하여 스토리텔링한다.</li> </ul>	준 비 물 안 내
	작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중요한건 ‘나’에 대한 집중의 시간임을 알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가 끝나면 박수로 작품을 존중해준다.</li> </ul>	
	차시 예고 및 준 비 물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시간의 수업내용 및 준비물에 대해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 및 준비물을 메모하며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한다.</li> </ul>	
	주변 정 리 및 상호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지도한다.</li> <li>● 상호 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li> <li>● 상호인사한다.</li> </ul>	
	도입	<p>화지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고 거울을 보고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어보고 관찰해 나의 감정을 표현해볼 것을 설명해준다.</p> <p>수업의 이유 알려주기</p> <p>▶ 오늘 수업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표정을 그리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각 표현의 차이를 생생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p>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원 형태의 도형을 화지에 5-6개를 표현해 본다. 얼굴에 표정을 그려본다.</li> <li>▶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표정을 표현해보게 한다. 색감을 더하여 감정과 색감을 연결시켜 보게 한다.</li> <li>▶ 스스로 표정을 짓기 어려워하는 아동을 위해 지도자가 표정을 먼저 지어보고 얼굴의 변화를 관찰해 본다.</li> <li>▶ 감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이야기 나누어 본다.</li> </ul>
정리	<p>드로잉 시간을 정해주고 정해진 시간이 끝났음을 알린다.</p> <p>작품에 제목을 지어 창조의 과정을 마무리 짓고 작품에 의미를 부여시킨다.</p>
발표	<p>거리를 두고 작품을 객관적으로 감상하게 한다.</p> <p>내 감정 정서에 대해 집중하여 스토리 텔링을 한다.</p> <p>다른 친구들의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듣고 박수쳐준다. 이를 통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p>
학습자료	아이들의 표정을 관찰 할 수 있는 거울 준비

- 본시 수업 내용

거울을 보고 나의 표정을 다양하게 지어본다. 표정의 차이를 관찰하고 표현한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해야할 표정에 집중한다. 여러 감정을 나타내고 자아 감정을 표현하고 관찰하면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다.

- 필수 학습요소

기쁜 표정, 슬픈 표정, 놀라운 표정, 당황스러운 표정, 속상한 표정 등 다양한 감정의 표정을 표현해본다. 다양한 얼굴 표정을 관찰해보고 표현한다. 여기서 나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본다.

-수업의 개요

나의 감정들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감정에 대한 솔직한 자세를 볼 수 있다. 이를 표현하면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을 진행한다.

-본시 수업목표

표정들을 보여주고 그 표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어 나간다. 기쁜 표정은 왜 기쁜 표정인지 상황을 이야기 나누어보고, 슬픈 표정은 슬픈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아동들은 이야기 하면서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며 감정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생각해 낼 수 있다. 감정들과 상황에 대해 표현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며 나에게 대해 집중하고 나의 정서에 집중한다. 이러한 자아 감정 드로잉을 통해 정서지능 향상을 기대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

구체적인 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확실한 표정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발문을 통해 도와준다. 그리고 표정을 관찰하고 표현하는데 만 머무르지 않고 표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상황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발문한다.

- 무슨 표정일까요? 무엇을 했을 때 이런 표정이 나오죠?
- 다양한 정서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2) 타인의 감정 인식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 1

<표6> 수업지도안 2

대상	5-7세		수업자	본 연구자	
교과	미술 / 총 1차시 (50분)		개별화요소	골맨 (Goleman)의 정서지능 5 요소를 접목	
학습 주제	우리 가족이 벚꽃놀이를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학습 목표	‘나’와 더불어 ‘타인’인 가족의 정서에 집중하여 ③ 감정이입 (Empathy), ④ 자기조절 (Self-managment), ⑤ 대인관계기술 (Social skill)을 경험할 수 있다.				
	가까운 타인 ‘가족’과의 벚꽃놀이 경험을 표현한다.	‘나’의 정서와 상황 속 ‘타인’가족의 감정을 비교 분석한다..	아이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		
환경 및 투입 자료	교사 - 벚꽃놀이 사진 학생 - 드로잉 재료 (8절지,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학습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유의 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인사 및 출석확인 - 출결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와 함께 상호인사</li> </ul>		

	<p>학습 분위기 조성</p> <p>동기 유발하기</p> <p>전시 학습 상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li> <li>● ‘벚꽃놀이’의 소재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li> <li>● 발문을 통해 전시에 진행된 정서지능 향상 드로잉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선생님의 말을 경청한다.</li> <li>● 주제에 관심을 보이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며 수업에 집중한다.</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해본다.</li> <li>●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한다.</li> </ul>	<p>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p>
<p>전개 - 중심 활동 (35')</p>	<p>학습 목표 제시</p> <p>주제 제시</p> <p>학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우리 가족이 벚꽃놀이를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li> <li>● 경험을 떠올리게하여 ‘나’와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발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학습단원 학습목표를 읽고 오늘 수업 주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준비된 자료를 함께 보며 수업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li> <li>● 벚꽃놀이 경험을 떠올리며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상황 속 가족들의 감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한다.</li> </ul>	<p>예시 자료</p>

	<p>작품 제작</p> <p>순회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실을 순회하면서 개인별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을 통한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 드로잉에 도움을 준다.</li> </ul> </li> <li>● 드로잉이 먼저 끝난 아동은 발표를 준비를 진행 하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점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한다.</li> </ul> </li> <li>● 드로잉이 끝난 후 발표를 준비한다.</li> </ul>	<p>드로잉 재료</p> <p>순회 지도</p>
<p>정리 활동 (8')</p>	<p>학습 내용 정리</p> <p>작품 발표</p> <p>차시 예고 및 준비물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이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중요한건 '나'와 가족 '타인'의 상황 속 다투는 등의 감정에 대한 집중의 시간임을 알린다.</li> </ul> </li> <li>● 다음시간의 수업내용 및 준비물에 대해 안내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타인'가족의 감정, 정서에 집중하여 스토리텔링한다.</li> <li>● 발표가 끝나면 박수로 작품을 존중해준다.</li> <li>●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 및 준비물을 메모하며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한다.</li> </ul>	<p>준비물 안내</p>

	주변 정리 및 상호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지도한다.</li> <li>● 상호 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li> <li>● 상호인사한다.</li> </ul>	
	도입	<p>다 같이 벚꽃나무의 시각자료를 본다.</p> <p>▶ 벚꽃나무가 가득 핀 봄에 가족들이 꽃놀이를 갔어요. 꽃놀이 가본 사람 있을까요? 등의 경험을 상기시킨다.</p> <p>▶ 가족들과 벚꽃놀이를 간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 해보며 수업 단원과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p>		
	전개	<p>학생은 교사가 준비한 시각적 자료를 보며 경험을 떠올리며 가족들과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p> <p>나와 가족들의 감정을 표현해보게 한다.</p> <p>흰 화지에 벚꽃놀이의 상황을 그려본다.</p> <p>벚꽃놀이의 상황을 자유롭게 드로잉하며 상황의 스토리텔링 속 정서를 반영한 드로잉이 완성되도록 지도한다.</p>		
	정리	<p>드로잉 시간을 정해주고 정해진 시간이 끝났음을 알린다.</p> <p>참고했던 자료와 드로잉 재료들을 정리하도록 지시한다.</p>		

<p>발표</p>	<p>작품 속에 가족의 구성원은 몇 명인지, 나는 벚꽃놀이에서 무엇이 제일 재밌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발표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li> <li>- 상황 속 '정서'를 잘 관찰하고 기억하여 표현했는지 ?</li> </ul>
<p>학습자료</p>	<p>벚꽃의 시각 이미지 준비 / 연필, 색연필 등 건식재료 준비</p>

- 본시 수업내용

아동들이 매일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인 '가족'을 대상을 선정한다. 그리고 봄이면 볼 수 있는 벚꽃놀이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 드로잉을 진행한다.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벚꽃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토대로 개개인의 개성에 맞게끔 다양하게 드로잉해본다. 이번 수업을 통해 경험에 대한 이야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나와 타인의 감정들 간의 관계 속 감정해소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표현해본다.

- 필수 학습요소

집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파악해보고 가족과 함께했던 벚꽃놀이의 경험담



을 스토리텔링을 해본다. 그 중 감정에 대하여 심화된 이야기 나누기. 벚꽃나무와 경험담의 부분 관찰, 표현 방법에 따른 드로잉을 학습한다.

#### - 수업의 개요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해하고 ‘가족과 벚꽃놀이’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감정들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에서 아동들이 정서를 인식하고 드로잉에 담아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정서에 대한 기억력과 표현력을 기르는데 의의를 둔다.

#### - 본시 수업목표

머릿속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상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벚꽃놀이’안에서 그려 넣을 종류를 파악하고 소재를 관찰하고 핵심적인 표현대상을 찾아내어 표현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개성 있는 표현에 의한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가족’이라는 친숙한 대상을 표현해 보면서 나의 감정, 가족들의 감정 그리고 벚꽃을 보며 느껴지는 기분들까지 정서를 드로잉에 담아본다. 집중력과 관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기억을 상기시켜보고 소재에 대한 표현을 통해 드로잉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 - 지도상의 유의점

벚꽃놀이를 하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는 전제를 깔아주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을 제공을 해주기보단 발문을 통해서 직접 기억해 내게 도와준다. 벚꽃놀이를 간 경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기분, 엄마의 기분, 아빠의 기분, 형제들의 기분에 대해 발문한다. “벚꽃놀이를 갔을 때 차에서 봤을까? 내려서 봤을까? 아니면 무엇을 사먹었나요?”, “그 때, 내 기분은 어땠을까? 엄마는? 아빠는? 언니, 오빠, 동생들은?”

3) 타인의 감정 인식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 2

<표7> 수업지도안 3

대상	5-7세		수업자	본 연구자	
교과	미술 / 총 1차시 (50분)		개별화요소	골맨 (Goleman)의 정서지능 5 요소를 접목	
학습 주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일지 드로잉해봐요 !				
학습 목표	‘타인’의 스토리를 듣고 감정에 집중하여 ③ 감정이입 (Empathy), ④ 자기조절 (Self-managment), ⑤ 대인관계기술 (Social skill)을 경험할 수 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다.	‘친구’의 스토리 속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여 표현한다.		아이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	
환경 및 투입 자료	학생 - 드로잉 재료 (8절지,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학습 과정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유의 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	상호 인사 및 출석 확인	● 상호 인사 및 출석확인 - 출결을 확인	● 교사와 함께 상호인사		

	<p>학습 분위기 조성</p> <p>전시 학습 상기</p> <p>동기 유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li> <li>● 발문을 통해 전시에 진행된 정서지능 향상 드로잉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상기시킨다.</li> <li>● 짝꿍을 지어주어 A친구랑 B친구가 서로의 스토리를 텔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선생님의 말을 경청한다.</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해본다.</li> <li>●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한다.</li> <li>● 짝꿍과 인사하고 진지하게 스토리와 기분에 중심을 맞추어 스토리텔링한다.</li> </ul>	<p>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p>
<p>전개 - 중심 활동 (35')</p>	<p>학습 목표 제시</p> <p>주제 제시</p> <p>학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A 친구에게 텔링 할 기회를 준다.</li> <li>● B 친구에게 텔링 할 기회를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학습단원 학습목표를 읽고 오늘 수업 주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A 친구는 B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스토리텔링한다.</li> <li>● B 친구는 A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스토리텔링한다.</li> </ul>	

	<p>작품 제작</p> <p>순회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를 이미지화 시켜 ‘나’와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발문한다.</li> <li>● 실기실을 순회하면서 개인별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을 통한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 드로잉에 도움을 준다.</li> </ul> </li> <li>● 드로잉이 먼저 끝난 아동은 발표를 준비를 진행 하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하여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서에 집중하여 드로잉으로 표현한다.</li> <li>● 어려운점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한다.</li> </ul> </li> <li>● 드로잉이 끝난 후 발표를 준비한다.</li> </ul>	<p>드로잉 재료</p> <p>순회 지도</p>
<p>정리 활동 (8')</p>	<p>학습 내용 정리</p> <p>작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이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중요한건 ‘타인’의 상황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시간임을 알린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듣고 표현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li> <li>● 발표가 끝나면 박수로 작품을 존중해준다.</li> </ul>	

<p>차시 예고 및 준비물 예고</p>	<p>● 다음시간의 수업내용 및 준비물에 대해 안내한다.</p>	<p>●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 및 준비물을 메모하며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한다.</p>	<p>준비물  안내</p>
<p>주변 정 리 및 상호 인 사</p>	<p>●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상호 인사</p>	<p>●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 상호인사한다.</p>	
<p>도입</p>	<p>▶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기뻐할 때, 슬펐을 때, 당황했을 때, 놀라웠을 때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p> <p>▶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 속 인물을 소개하고 표정에 대해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면서 상황을 연상시켜본다.</p> <p>▶ 인물을 함께 드로잉 해보며 상황 속 인물의 정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본다.</p>		
<p>전개</p>	<p>다양한 감정들 중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선택한다.</p> <p>흰 화지에 선택한 감정원 대상인 인물을 그리게 한다. 표정에 대한 상황을 드로잉한다.</p> <p>다양한 컬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을 드로잉에 나타나게 해본다.</p>		

정리	<p>드로잉 시간을 정해주고 정해진 시간이 끝났음을 알린다.</p> <p>참고했던 표정들의 사진과 드로잉 재료들을 정리하도록 지시한다.</p>
발표	<p>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표정이 나오게 된 상황을 발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li> <li>- 주제 관찰에 대한 표현이 드로잉에 잘 나타났는지 ?</li> </ul>
학습자료	표정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준비

- 본시 수업내용

어느 상황을 제시하며 나, 가족들이 아닌 제 3자 친구 또는 또 다른 사람임을 안내한다. 사진 속 인물의 상황을 잘 관찰한다. 그 상황 속 인물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감정을 드로잉에 표현해본다.

- 필수학습요소

각궁의 경험담을 듣고 인물의 상황을 잘 관찰한다. 경험을 토대로 왜 이러한 표정을 지었는지 스토리 텔링한다. 도형을 바탕으로 드로잉을 시작한다. 부분 관찰, 표현 방법에 따른 드로잉을 시작한다.

- 수업의 개요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해하고 인물의 표정을 잘 관찰하고 표현하는 활동에서 아동들이 관찰력과 표현력을 기르는데 의의를 둔다.

- 본시수업목표

표정을 잘 관찰하여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동화 속 인물들의 특징은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표정을 지을 때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사진을 통해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스토리와 함께 표현해본다. 주변인을 표현함으로써 흥미를 더하고 이를 상황을 연결시켜 드로잉 한다면 더 깊은 집중력이 보여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인물의 행위에 대한 표현을 드로잉에 담을 수 있다.

- 지도상의 유의점

표정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동료의 작품을 보고 그리는 등의 학습은 자제한다. 주제를 관찰하고 표현하는데 만 머무르지 않고 인물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이를 표현하게 한다.

## 4.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드로잉 작품 결과 분석

위의 다른 주제의 세 가지 학습지도안을 바탕으로 R문화센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해 집중도를 끌어내어 작품을 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미취학아동들의 드로잉 정서표현을 구체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 1)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 - 나의 감정 표현하기

나의 감정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5-7세 미취학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표정을 그릴 때, 혹은 인물을 그릴 때의 특징은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형식화된 웃는 얼굴을 그린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도입부에 아이들에게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표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표정을 지어보고 거울로 직접 다양한 표정들을 보며 나의 감정과 표현을 자유롭게 드로잉을 하게 하였다.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어떤 표정인거 같아요? 왜 그런 감정일까요? 발문을 통해 생각을 끄집어 내 주었더니 다양한 감정에 대한 생각을 접하게 할 수 있었다. 웃는 얼굴의 표정을 지어 어떤 기분인 것 같나요?라는 발문을 먼저 하였다. 손을 들며 ‘행복해요, 신나요, 웃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 왜 행복해 보일까요? 무엇 때문에 신이 날까요? 웃음은 무엇을 보고 웃음이 났을까요? 라는 발문을 통하여 아이들이 드로잉을 하기에 앞서 생각을 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질문의 대답을 통해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아래와 같은 작품들이 완성 되었다.





[학생작품1 - 7세 여아, 나의 감정 표현하기]



[학생작품2 - 6세 여아, 나의 감정 표현하기]



[학생작품3 - 6세 여아, 나의 감정 표현하기]



[학생작품4 - 6세 여아, 나의 감정 표현하기]

감정에 대한 색감을 찾기 어려워 하나의 색으로 표현하며 표정에 대한 표현이 소극적인 아동들도 있었고, 그림 <학생작품1>의 작품의 경우 감정에 대한 이유를 함께 드로잉 해 준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아동들의 개성 있는 형태의 작품들이 제작 되었다. 아동들은 일단 다양한 색감을 통하여 자유롭게 그린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감정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은 점차 흥미가 떨어져 가는 아동도 있었다. 이때에는 영영 우는 표정을 지도자가 지어보인 다음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 있나요? 라는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그에 따른 표현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경험에 의한 연계는 분명히 아동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며 언제 슬프고 놀라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지 생각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나의 정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 2)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수업지도안 2, 벚꽃놀이라는 주제로 나와 가족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벚꽃나무의 시각 자료를 더하여 벚꽃놀이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벚꽃나무의 표현의 집중이 아닌 상황을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발문하였다. 벚꽃놀이에 가봤던 이야기, 차를 타고 갔는지 주변엔 무엇이 있었는지, 누구랑 갔는지 그때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형 언니 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발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로잉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일반적인 벚꽃놀이가 아닌 상황 속 인물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더 세부적으로 관찰 할 수 있음에 표현의 흥미를 왕성하게 하였다.



[학생작품5 - 7세 여아, 우리가족이 벚꽃놀이를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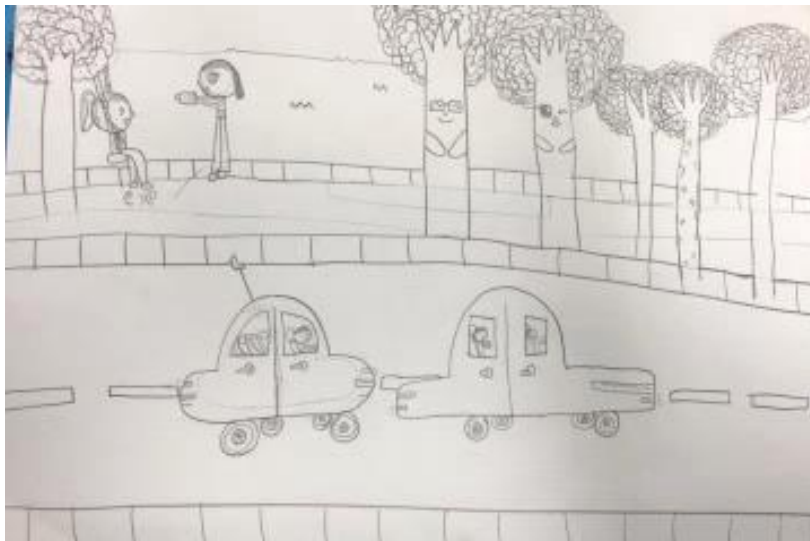


[학생작품6 - 7세 여아, 우리가족이 벚꽃놀이를 갔어요]





[학생작품7 - 7세 여아, 우리가족이 벚꽃놀이를 갔어요]



[학생작품8 - 7세 여아, 우리가족이 벚꽃놀이를 갔어요]

7세 여아들 작품이다. <학생작품5>의 아동의 경우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가 너무 고평서 화가 났지만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화가 사라지며 행복해졌다는 표현이 놀라웠다. 대부분의 벚꽃놀이를 표현하면 행복함만 표현하기 바쁘지만, 수업에 대한 도입부에서 정서를 중심으로 발문하였기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졌다. <학생작품8>의 아동의 경우에도 바쁘지만 차로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학생작품7>의 경우 막내는 돛 자리에서 자고 있는걸 표현하면서 아직 아이라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감정에 대한 추측에 대한 표현까지 나타났다. 경험에 의한 상황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수업의 목표인 감정의 전달을 드로잉에 잘 표현해내는 능력을 칭찬해주었다. 이로 인해 그림에 대해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이 상승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학생 스스로도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지도안 1,2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제 3자 나와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드로잉 표현을 수업지도안 3을 통해 진행시켰다. 감정을 선택하여 하나의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순간의 감정과, 상황의 재현을 통한 드로잉 수업이 진행되었다. 감정에 대한 상황을 고민하고 다 같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분은 날아갈 것 같은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지, 또는 너무나 놀라운지, 잔잔한 노래가 듣고 싶은지 다양한 감정의 형태를 예로 들어 발문하였다. 감정을 선택해보고 감정의 형태를 선택하여 스스로 드로잉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상황을 관찰하고 친구 또는 제3자의 표정에 따른 상황을 연출하여 표현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에게 일상화를 시켜보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절한 예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생각하고 표정을 살펴보며 무슨 상황일 것 같은지 경험에 빚대어 새로운 화면이 연출된다.

드로잉이 끝난 후 친구들과 무슨 상황인지 어떤 기분인지 작품 설명을 통해 이해하면서 친구들의 표현력 또한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니 아이들이 일상 대화를 하듯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작품 9 - 7세 여아]

7살 여아의 작품이다. 쪼그리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바탕으로 친구가 이것저것 먹지 않으려고 하는 반찬투정을 하던 경험을 연결시켜 작품에 표현하였다. 인물의 형태와 표정을 담으려 노력했다. 투정을 나타내는 표정을 묘사하기엔 아직 서툴지만 충분히 다른 상황연출의 반찬들, 일어서있는 친구의 모습 등을 나타내어 스토리 연출을 즐겁게 했다.



[학생작품10 - 7세 남아]

7살 남아의 작품이다. 행복해 보이는 큰 기쁨의 감정을 바탕으로 우주비행사의 꿈을 꾸는 아이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꿈을 꾸고 있는 아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그려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함을 표현하였다. 인물을 크게 그려 넣어 그 행복감이 배로 보이게끔 드로잉이 진행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행성과 비행기, 우주선 등의 소재를 넣고 우주복을 입혀 꿈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학생작품11 - 7세 여아]

7세 여아의 작품이다. 특이하게 표정뿐만 아니라 행동이 명확히 표현된 케이스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어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명확하게 들려주었다. 수업의 목표를 잘 이해하여서 일까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행복함을 거침없는 선의 표현으로 막힘없이 주제를 풀어나갔음을 볼 수 있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정서지능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기존의 유아미술의 가르침과 다르게 경험을 토대로 작품에 그려 넣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더욱 더 막힘없이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수업지도안을 제작하고자 실시하였다. 골만(Goleman)의 정서지능 5요소를 바탕으로 수업지도안을 창안하였으며 경험을 재현하며 순간의 감정을 표현해보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잠재된 표현 욕구와 연결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드로잉을 통하여 유아기 아동들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긴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빠르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든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드로잉을 통해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수업지도안을 계획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을 포함하여 하위영역인 자기와 타인의 인식 및 표현의 능력, 조절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확대된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이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면서 중심이 될 것이며 가장 큰 교육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상을 살펴보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대상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창의력이 중심이 된 드로잉 교육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유아기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드로잉 지도 방안에 대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짓고자 한다.

첫째, 교육자는 작품의 모작의 결과를 제안 하는 게 아닌 동기유발을 해주어야 한다. 자아를 탐색하고 나의 정서, 타인의 정서를 작품에 반영시켜 그려나갈 때, 아이들의 정서는 창의성이 있으며 풍부해 질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미술교육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러하다.

수업전개와 결과에만 집중된 수업방식 보다는 교육자가 주제에 대한 관찰과 정서에 대한 표현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에 도움을 준다면 스스로 사고하고 제작하는 문제해결능력까지 보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성취감은 자라나는 유아기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이다.

둘째, 교사가 아닌, 아동 중심의 드로잉학습이 되어야한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매번 시범을 보여 주길 바라고 의존하게 되어버린다. 이를 피하고 스스로 관찰학습 시간을 늘려 몰입하고 표현거리를 찾아 작품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실기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또래들 간의 스토리텔링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 있는 작품들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아 동일화를 경험할 수 있고 사회성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의 발문을 통한 창의성 자극이 필요하다. 작품을 제작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건 이런 형태가 아닌 걸?’ 식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교정해 나가려한다. 이는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결여시키고 미술에 대한 흥미를 배제시킨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미술교육을 진행하면 표현의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해 발문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한다. 도입단계에서 주제에 대해 발문하고 경험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발문한다면 확대된 사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자의 지나친 개입이 아닌, 동기유발을 통하여 아이들의 내면세계가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아기 아동이 중심이 되어 표현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한정적인 정서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풍부한 정서 성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드로잉은 미취학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아동들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드로잉을 할 수 있다. 대상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에 이를 위하여 아동 중심의 표현의 교육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자 또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 아동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드로잉활동이 미취학 아동들의 정서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확인함으로써 미술교육 현장에서 드로잉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지도안을 제안함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 표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표현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미술과 정서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드로잉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믿음사, 1995

권구상, 『아동미술교육, 1991』

이소은, 권기남. 『아동미술』, 양서원. 2011

이영자 외,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2002

임정기 외 9인 『기본 수업모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990

황신용,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학위논문

곽윤정. 『정서지능 발달경향성과 구인 타당화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현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음악 감상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음악적 표현능력, 음악적 태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김금임. 『명화를 활용한 미술 감상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전도식기 아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상미 『정서지능 개발 미술프로그램을 통한 회화 표현력 신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김세진.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여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적 미술 표현지도 방안 연구 -만 6,7세 아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박현희. 『미술교육에서 감각 체험 활동을 통한 드로잉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찬숙. 『드로잉 훈련이 발달장애아동의 시지각 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소집단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정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이경희. 『드로잉을 통한 심상표현 연구-2~9세의 아동화를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연미. 『집단미술치료를 경험한 유아의 정서지능 변화와 KHTP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2013
- 안영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묘정. 『취학 전 아동 미술교육의 단계별 프로그램 연구 -평면표현 효과에 관하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아현. 『유아의 평면 미술에 나타난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연미. 『명화를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하지현. 『초등학교 저학년 동물 드로잉 교육 연구 -로웬펠드 창의적 미술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3-211.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 라스코 동굴 벽화 이미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903&cid=47323&categoryId=47323>

수변의 수렵 이집트 미술  
<http://blog.naver.com/lsikk/120008422598>